



새내기 공무원 새출발 다짐 17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및 작년 하반기 이후 합격한 도청의 새내기 공무원과 그들의 부모님을 초청해 '새내기 공무원 새출발다짐 간담회'를 가졌다.

도내 1분기 6차산업 인증 17개소

22개소 신청 17곳 지정받아 높은 인증률 보여... 총 120개소로 전남 133개소 이어 전국 2위 규모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내 우수 경영체 17개소가 2016년도 1분기 6차산업 인증자로 지정됐다. 이로써 도내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총 120개소(전국 868개소)로 이는 전남 133개소에 이은 전국 최대 규모이다. 6차산업이란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해 1·2·3차 산업을 융복합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이번에 도에서는 경영체 22개소가 신청해 17개소가 인증받은 높은 인증률을 보였다. 6차산업 인증 신청 자격은 농촌지역 소재여부, 1·2·3차 산업 융복합 여부, 지역농산물 사용여부,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 등이 기준치를 통과해야 하며 경영상태 및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심사 후 선정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

부장관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자인증서'를 발급하고, 우수제품 유통품질회 개최, 우수사례 경진대회, 6차산업 온라인 사이트(<http://www.6차산업.com>)에 인증정보를 등록해 6차산업 인증 사업의 제품은 인증표시를 부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현장 코칭, 자금

지원, 새로운 유통 채널구축 등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6차 산업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 사업자로 지정해 6차 산업 확산의 주체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인증사업자 중 경영실적, 사업목표 달성도 등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포상해 6차산업화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권익위, 3개월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73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 7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건복지 34건(46.6%),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식품 6건(8.2%), 건설교통 5건(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신고 건수의 95.8%를 차지했다. 문화관광, 교육, 보훈 등이 각 1건씩 접수됐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인건비 부정수급 사례가 33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채용하지 않은 직원을 청년인턴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직원 입사·퇴사 일자를 조작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 등이 다. /안진수 기자

전북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추진

농식품부, 신규착수 5지구 · 기본조사 대상지 4지구 선정 국비 1093억 지원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도 2016년 배수개선사업 중 신규착수 대상지 5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 4지구를 선정해 1,093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매년 홍수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50ha 이상의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는 상습 침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로 착수된 5지구는 익산 내촌, 정읍 화호, 남원 방동, 부안 금관, 진안 백운 지구다.

이 지구는 그동안 기본조사와 기본계획만 수립돼 묶여 있어, 착수지구 지정이 되지 않았던 곳으로 앞으로 면밀한 조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등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익산시 황등면 황등지구 등 4개 지구 653ha는 올해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확정돼 총사업이 677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지난해 300ha 기본조사 지구로 지정돼 현재 기본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 지정된 면적을 합치면 628ha로 침수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지정된 기본조사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물국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을 통해 역대 최대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 도 기후변화에 대비 안정적 영농이 가능하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선 6기 핵심 시책인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위해 추진하는 '삼락농정(三樂農政)' 실현의 밑거름이 되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공공근로 · 공동체일자리사업 전개

군산시, 20일~27일까지 참여자 65명 모집

군산시는 2016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201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며 총 65명을 모집한다. 이번 재정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제공하여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지원자는 가구소득에 관계 없이 청년적합대상사업 선발인원

범위 이내 우선선발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65세 이상 참여자는 10% 이내로 선발하며 단계적으로 2017년부터는 참여가 제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은 1일 6시간 근무에 월 평균 9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며, 만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근무에 월 평균 5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또는 투자지원과(454-276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 기자

도,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적극 지원

17일 전북도는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와 도내 정치권, 사회단체가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과 간담회를 통해 도내에 많은 잠재적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장애로 생계 포함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3차에 걸친 가슴기 살균제 피해신청 접수결과 도민 43명이 피해조사를 신청했다. 그 중 1~2차 피해조사(2013년 7월~2015년 4월)에 접수한 15명 중 피해 인정된 지원대상은 총 4명이며, 피해신청자 중 사망자 2명은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2015년 12월까지 진행된 3차 조사에 접수한 28명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여부도 조사 중에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는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위기 가정에 생계 긴급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정신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피해자 추가신청에 대한 안내 및 접수지원 창구 설치 ▲의약품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X-Ray 및 CT 등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00, <http://www.keiti.re.kr/>)에 신청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정영수 기자

도, 국가지질공원 현장 워크숍 내일 개최

진안 · 무주군 일원에서

17일 전북도는 성공적인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워크숍이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진안, 무주군 일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 등 국가지질공원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

진 상황 확인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할 예정이다. 또 지질·지형 전문가들도 참석해 지질자원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도내 지질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한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수립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영수 기자

전주시민을 위한 무료 특강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과 전북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원우회가 공동으로 전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삶의 즐거움과 명랑한 사회를 위하고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성학 및 부부대화기법 특강으로 실시됩니다.



강사: 주선희

-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 KBS 사회교육원 강사
- 인성학박사 1호
- KBS 아침마당 패널

강의주제: 행복을 부르는 인성



강사: 김양옥

-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대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KBS 아침마당(3회) 출연자

강의주제: 부부대화기법

©일시: 2016. 5. 25(수) 오후 7시 ©장소: 전주 시청 강당
 ©문의전화: 231-6669, 285-6676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주최: 한국스피치 & 리더십 컨설팅
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063-288-9700
www.jjmaeil.com